

왜 學生의 授業評價를 두려워하는가

朴 榮 根
(中央大 佛語佛文學科)

1. 敎權의 危機

최근 대학 사회에서는 民主化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제반 문제점들의 표출에 의해 대학 구성원 간에 갈등과 내부 모순의 증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종전과는 달리 대학 행정과 학사 일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교수들에게 위기 의식을 조성하고 있다. 변화와 도전에 대하여 순발력과 적응력이 부족하고 서투른 교수들의 우려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이와 같은 갈등 구조에 대한 시각의 편차가 공안 정국의 영향에 의해 兩極化되어 가는 현상에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이 양극화 현상이 놀이판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대학 구성원들이 노력하여 쟁취하려는 것은 바로 이 놀이판의 활성화를 통해

놀이 규칙의 열개를 제대로 衡平의 原則에 맞게 엮는 데 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처음부터 그와 같은 놀이 규칙이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수 위주의 一方通行式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과 진정한 모습살이를 위해 교수들의 反省과 마음 열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한 그동안 취해 온 교수들의 안일한 태도 역시 반성을 요구한다. 대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수들은 안팎의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가하는 물리적인 힘에 너무나 무기력했고 침묵으로 시종일관해 왔다. 심지어 적당주의 내지 순응주의는 교수의 社會 參與를 배안시하고 학문의 純粹性과 客觀性을 내세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표출시킨 현실 문제에 등을 돌렸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연행·구속·고문을 당하고, 좌경·용공 분자로

몰아쳐지는 현실 속에서 교수들은 '제자들의 焚身이라는 비극에 衝擊 遮滅의 法則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수들의 무능'만을 고백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教授의 位相에 강도 높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외에도 강의 내용과 성적 평가, 부정 입학 문제 및 교수 채용 시 음성적 금전 거래와 학연·지연을 중요시 하고, 특히 본교 출신을 편애하는 근친상간적 임용, 논문과 학생 지도의 불성실, 재단에 대한 일부 교수들의 맹목적 충성과 정권에 아부하는 무비판적인 협력 등 교수들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군다나 구시대에 잘 길들여진 더듬이로 지난 1년의 정치 상황을 기회주의적으로 평가한 후, 상당 수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들의 反歷史的 태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게다가 교권의 이름으로 학생

을 매물차게 냉대하고 심지어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정치 권력과 주종 세력에 의해 교묘하고 집요하게 가해지는 현실의 탄압 요인에 반항해서 행동하는 눈 뜬 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비뚤어진 눈으로 보는 교수들의 태도는 불식되어야 한다. 교수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의식하여 그 상황이 변혁에 민감한 역사적 현실로 변모한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眞正한 敎權을 확립할 수 있다.

특히 교수들이 가르친 교수 내용이 부지불식간에 파울로 프레이리가 지적한 소위 '은행저금식 교육'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축소·마비시켜 그들을 受動的 客體로 함몰시킴으로써 非人間化하는 획일적 주입식 위주의 이 교육이야말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원치 않는 지배 세력에 충실히 부무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레이리는 가르치는 자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매김하고 있다.

- ①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르침을 받는다.
- ②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 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 ③ 교사는 생각하고 학생들은 생각의 대상이 된다.
- ④ 교사는 말하고 학생들은 암전하게 듣는다.
- ⑤ 교사는 훈련시키고 학생들은 훈련 받는다.
- ⑥ 교사는 선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고 학생들은 동 의한다.

⑦ 교사는 행동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환상을 갖는다.

⑧ 교사는 知識의 權威를 자신의 직업상의 권위와 혼동하고 그 권위로써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⑨ 교사는 학습 과정의 주체이고 학생들은 단순히 객체일 뿐이다.¹⁾

이리하여 학생들이 預託所가 되고 교수가 預託자가 되며, 의사 소통에 의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교수들이 지침을 일정하게 만들어 발표하고 예탁금을 만들면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참을성 있게 수용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이 "은행저금식 교육 개념은 인간을 改造할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당연한 존재로 간주한다. 학생들이 맡겨 오는 예탁금을 저장하는 작업에 임하면 임할수록 세상을 개혁하는 개혁가로서 세계에 개입함에 따라 생겨나는 비판적인 의식이 그만큼 덜 발달하게 된다. 그들에게 부여된 被動的인 役割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그저 적응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자기네 내부에 예탁된 현실에 대한 斷片的인 견해만을 갖게 된다."²⁾

따라서 교육은 施惠的 차원

에서의 '일종의 선물'이며 교수들은 학생들의 무지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탐구 과정으로서의 교육과 지식을 부정함으로써 일방적인 권위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측면에 빠지고 만다.

앞으로 교수들은 학내 문제에 積極的이고 前向的인 태도로 접근하고 그것을 미봉책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규명을 통해 發展을 위한 아픔을 수용해야 한다. 체질의 개선은 관점의 변화를 전제하고 변화는 진통을 수반한다. 이러한 개선은 교수들이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학내·외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관심 표명과 가시적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 작금 敎權의 危機는 학생 권리의 불인정 내지는 무시, 학생을 교육의 객체로 간주한 사실에서 기인되었으며 교권의 위기는 바로 교권에 병들었다는 症狀을 입증하고 있다.

2. 學生權의 자리찾기

이제까지 대학 사회에서 학생이 대학의 엄연한 구성원이며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위와 발언권의 문제 그리고 교과과정 내용 및 그 개선이나 대학 행정과 학생 복지 문제에 대한 參與權은 거의 도외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니 학생들 스스로가 대학을 지식 기능공을 양산하는

1)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성찬성 역,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979, p.59.

2) 상계서, p.59.

공장으로 간주하여 그저 4년 동안 적당히 공부해서 취직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던 점도 있다. 게다가 교수, 학교 당국의 권위 의식과 기득권의 유지 및 그들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보수성에 의해 學生權조차 거론되지 못한 상태이다. 나중에 부연하겠지만, 학생권은 學權과 대학 행정에 대한 參與權의 결합임을 밝혀 둔다.

특히 분단 이후 정치 권력과 대학의 관계는 통제와 자치라는 맞물림의 갈등 속에서 학원의 자유와 교수-학생의 지위와 권리의 핵심 고리인 大學의 自治가 무참히도 짓밟혀 왔고, 지금도 같은 상황 속에서 대학은 심한 몸앓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71년 5월 28일 일본의 東北大學 사 무국장 폭행 사건에 대한 고등 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우리는 학생의 지위에 대한 재미있는 예를 볼 수 있다.

“학생은 대학에서 불가분의 구성원이고 학문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자이므로 학원의 환경 조건 유지 및 개혁에 중대한 이해 관계를 갖는 이상 대학의 자치와 운영에 대해서 요구나 비판 혹은 반대하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며 敎授團에서도 이러한 학생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해석한다. (...) 대학 당국이 직접 당사자의 반대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체의 합의 없이 결론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나

비판을 무시 내지 이를 회피하고 또는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한 것”³⁾을 비판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학생은 수동적 위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며 학문 연구의 일익을 생산하는 부분적 生産者이다. 따라서 학생도 교수 못지않게 일정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자치와 학문의 자유가 인정·존중되어야 할 인격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일분과 거의 흡사한 유형으로 뒤쫓아 가면서 유독 학생권만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문교부, 학교 당국, 교수들에 의해 철저히 차단된 學生權은 民主化의 過程에서 학생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당위성은 교육 귀족 집단과 獨裁 權力의 反民族的·反民主的·反統一의 인 음해 공작의 교환성에 의해 유린되어 왔음을 적시했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대응하는 순발력을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 제도에 의해 비판 의식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침묵의 문화’에 유쾌되고, 따라서 그들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단순한 일과성의 소비자로서 자임하는 자기 최면에 걸려 왔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와 같은 강요된 침묵의 문화와 자기 최면의 파괴가 바로 학생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좋은 환

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이 사회의 構造的 矛盾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훌륭한 인격의 교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스스로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참가할 수 있는 참여권을 요구한다. 몇몇 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행정의 발전을 위해 당국, 교수, 학생, 직원들로 구성된 대학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교과과정 개편, 등록금 인상, 교수 임용, 총·학장 선출 문제 등이 충분히 토론·합의됨으로써 대학 행정 公開化를 통한 合理性의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런데 일단 합의를 본 사항은 그 적용을 엄격히 상호 이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는 先進性을 보아야 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他國에 비해 자신들의 제정 부담률이 엄청난데 비해 강의실, 교육 기자재, 도서관 시설 및 장서 그리고 복지 시설의 엄청난 열악성에 경악하고 학교 당국과 제단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은 대학 민주화의 中核的 과제인 교육 내용의 質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교수 임용과 교과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및 참여 요구는 최근 몇 대학에서 보듯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점증되고 있고 조선대, 세종대, 연세대, 경남대의 경우처럼 중

3) 강인수, 대학의 자치와 학생의 지위·발언권,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8호, 1989, p.39.

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들은 학문이 단지 지적 호기심이나 허영을 떠나 뒤튼린 이 땅의 모순된 현실의 구조를 적확히 인식·극복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과과정의 구체성·총체성·과학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수들의 適當主義, 無事安逸主義, 現實逃避主義, 機會主義的 속성이 정치 권력과 맞물려 자신들의 공간만을 고집하며 마침내 스스로의 정체성, 비판과 도전을 거부하는 침체성에 기인한 위기 의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바로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더 이상 강의실에서 틀에 박힌 교육, 즉 교수들의 편협과 제도 교육의 경직성과 무의식성에 반발을 일으켜 자신들의 정보와 진실을 강의실 밖에서 획득하는 교육적 파행성에 직면하고 있다. 철저히 학생들의 食性이 무시되고 교수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단조로운, 즉 편식성과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진 식단을 강요받아 왔던 학생들은 교육 주체로서의 '학생-교수가 필요불가분의 관계로서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공여에 인식의 틀을 마련하고 교수 講義에 대한 評價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분적 생산자, 아니 적극적 소비자로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이와 같은 비판적 의식의 각성은 그것이 종전의 교육과 그것의 상호 관계의 인식 틀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으나, 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의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교수들은 그와 같은 요구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의 의외성 내지 선진성에 경악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학생에 대한 교수 및 학교 당국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감히 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감정적이고 위기적인 반발과 평가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卽自的 반응보다는 교육 주체로서의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심분 고려하고 종전의 교련에 대한 맹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대화와 의사 소통을 원한다면 서로의 존재를 솔직히 수평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때문에 학생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이 더군다나 양자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유기적 긴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 교수들은 이전의 관습과 기득권의 상실이라는 조바심에서 벗어나 解産의 고통을 통해 대학 민주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 확인을 통해 과격과 급진을 조절할 수 있다. 역사가 말하듯이 세계는 도전과 응전에 대한 역동적 탄력성에 의해 발전과 진보를 해왔다. 교수들은 대학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울퉁은 인식을 토대로 사명과 역할을 실천하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이지, 결코 상아탑적 자폐증에 빠져 서구적 지식 기능공을 양산하는 곳이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학생들이 교육 주체로서 학생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과학적으로 엮어내야 하며 학습권의 권리 못지않게 학생의 의무에 성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대학 행정에 대한 참여권은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의해 여과되어야 한다. 총장실을 점거해서 학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태도와 총장실이 점거될 때 비로소 학생들의 요구에 관심을 표명하는 학교 당국과 교수의 태도는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학생 운동은 학내에서 대학 구성원의 학원 자치 운동, 즉 大學內 運動으로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대학의 민주화가 바로 사회 민주화와 직결된다는 대학인의 의식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내 운동은 敎權, 學生權, 직원의 事務行政權의 삼각 구조를 통해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대학의 여러 모순을 혁파하고, 동시에 교육 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최근 문교부의 국·사립 교원 임용안에서 나타난 집단적 이기주의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고, 대학 운동은 학원 자치를 위해 구성원간의 이해 관계 내지 해계모니 쟁탈에 의한 분열을 경계함으로써 전체 이익의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